

의대정원 확대...전남대·조선대 각각 50여명 늘 듯

정부 “비수도권 집중 배정할 것” 지역별·대학별 확정은 안해 4월말까지 정원 윤곽 나올 듯...학교 측 “교수 충원·시설 확충”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따라 전남대와 조선대의대에 배정될 정원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남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선발 정원은 5058명이다.

정부는 다만 전체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지역별·대학별 정원은 확정하지 않았다.

전국에 의대가 40곳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2000명을 산술 평균하면 전남대와 조선대에 각각 50명씩 배정될 수 있다.

현재 전남대와 조선대의과대학 입학정원은 각각 125명으로 모두 250명에 달한다.

그동안 복지부가 증원과 관련해 밝혀온 원칙을 고려하면 ‘지방 국립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사립대보다 더 클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일단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전남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인 양성의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히 의료인 1명을 양성하는데 10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해 실험실습 등 시설장비 확충, 교육과 연구 공간 확충, 교수 추가 확보 등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상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린다.

조선대는 “정부와 의협(의사협회) 간의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고 “교수 충원, 교육 시설 개선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0명 늘린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은 2031년의 대를 졸업해 의사가 되는데, 이때부터 매년 2000명씩 의사를 배출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계획을 두고 전남대와 조선대의은 도차가 감지된다.

사립대는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서 의료 교육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으나 국립대의 경우 정부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남대를 비롯한 거점국립대의 경우 현재 여건으로는 40~50명 선이 최대 수용인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대 수용인원을 넘어서면 교육과 연구 공간 확충, 교수 추가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하는 현실적인 난제가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인원 확충에 따른 시설 투자가 없다면 부실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학별 정원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정부는 명확한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큰 점, 대입 수시모집이 9월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4월 말까지는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조물락조물락 만두가 되네 설 명절을 앞둔 6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청장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만두를 빚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자동차·이륜차 불법 튜닝 극성

지난해 안전단속 3334건 적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자동차·이륜차 안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334건의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778대를 단속해 288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이륜차 312대에서도 위반사항 452건이 확인됐다.

총 단속 건수는 2022년 2849건에 비해 485건(17.02%) 늘었다.

자동차 중에서는 등화장치 손상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2384(8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개조·튜닝이 446건(15.5%), 번호판 불량 52(1.8%)건으로 뒤를 이었다.

단속된 자동차 중에서는 화물차가 955대(4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뒷면에

안전판이나 반사판을 제대로 장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409건(14.2%),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물품적재장치를 불법 튜닝한 경우가 312건(10.8%) 등이었다.

이륜차는 안전기준 위반 224건(49.6%), 불법개조 131건(29.0%), 번호판 불량 97건(21.5%) 등이 적발됐다.

이륜차 소음 민원의 주 원인인 소음기 개조에 대해서는 단 18건(4.3%)만이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이범열 공단 광주전남본부장은 “2021년 7월부터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차량에 대한 처벌을 즉시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전자·자동차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불법행위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운전면허 행정처분 ‘설 특사’

생계형 등 광주·전남 2만5956명...음주운전·뺑소니 등 제외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경찰이 광주·전남지역 운전자 2만5956명에 대해 특별 감면을 시행한다.

6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7일 자정을 기준으로 ‘2024년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단행됐다.

‘2023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사·도민이 감면 대상자다.

별정이 삭제되는 운전자는 광주 1만 881명, 전남 1만 1616명이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광주 76명과 전남 107명은 7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대상자 6

명에 대해서는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득 제한기간인 광주·전남 3250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사망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도 제외됐다.

이 밖에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인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

“시 산하 공공기관장 사문서 위조” 고소장 접수

“동생 인감 도용, 부모 유산 토지 명의 변경 후 매각”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이 사문서를 위조해 부모 유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서부경찰은 최근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 A씨가 동생 B씨의 인감을 도용, 부모의 유산인 토지를 임의로 명의 변경하고 매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고소장은 B씨가 제출했으며 경찰은 조만간 A씨

와 B씨를 소환해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인감을 도용했다는 것도, 토지를 무단 처분했다는 것도 모두 사실 무근이다”며 “해당 토지는 국립공원인데다 맹자라 1년째 부동산에서 안 팔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에도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가 해외 체류 중이어서 조사를 반려 처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